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이론적 접근

Theoretical Approach about Housing Life Style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이연복
교수 洪亨沃

Dept. of Housing, Family & Child Studies, KyungHee Univ.

Graduate student : Yeon Bok Lee

Professor : Hyung Ock Ho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주거생활양식의 이론 모형 |
| II. 생활양식 | V. 결론 |
| III. 주거생활양식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a theoretical approach by literature about life style and housing life sty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making an analysis model of housing life style which can be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in empirical study.

The theme of 'Life style' was studied mainly in the area of consumerism and housing. Model was made to explore the sub-domain of new analysis model by the microsociological approach.

As results, 1) Independent variable of housing life style research model must be selected to be possible of comparison in effec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variable and in effect of predictive function and well-being function of housing life style.

2) Sub-domain of housing life style must be consisted of value orientation of family life, consumption in house, consumer durables, furniture., and propensity to using space.

3) Conceptual model of housing life style must be tested in empirical study to know what is the housing adjustment behavior of individual family, to improve quality of housing life, and to suggest housing policy for family as a consumer.

I. 서 론

산업화 이후 우리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더불어 소비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주거요구 또한 다양해졌다.

주거와 주요구가 상응하기 위해서는 주거 내에서 행해지는 개별적인 생활행위보다는 생활을 전체로써 파악하여야 하며, 이 전체의 생활양상과 주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여, 이것을 계획에 반영시켜야 함(김광문 외, 1988)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후 도시지역의 새로운 주택형으로 보급되어온 집합주택은 주택의 양적 증가에는 효율적이었으나, 주거공간의 유형이 일정한 형으로 고정되어 거주자들의 다양한 주생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주거학 분야에서는 거주자들의 생활특성, 가족생활주기, 계층, 지역,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활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써의 주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보다 적합한 주거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들(박용환, 1987; 윤정숙, 1990; 이희봉, 1991; 김상희, 1992)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과 공간상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분석하였을 뿐, 생활전체의 양상들과 주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로써의 주거생활구조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종래의 연구에서 주거생활양식¹⁾이란 용어는 주양식(住樣式), 주거양식(住居樣式), 주생활양식(住生活樣式) 등으로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왔고, 채용한 개념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의미로써 사용하여 왔다. 또한 직업, 소득,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변인과 가족생활주기, 연령, 가구구성 등의 가족특성

변인 및 주택규모, 가족생활주기나 거주지역 등의 주거특성변인에 따른 주거생활양식 연구가 부분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한 실태의 경향을 제시했을 뿐, 다각적인 주거생활양식의 유형 탐색 연구로써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에 따라 생활양식이 크게 달라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치관이 생활양식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주거유형 등이 오히려 생활양식을 선도하는 예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입주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리된 주택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어진 주택에 입주하여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거나 가족생활의 그릇이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주거에 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거주자의 이질적인 속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주거생활양식의 개념에 대한 규정조차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일차적으로 주거생활양식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주거생활양식의 모형설정과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모형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유형화된 각각의 주거생활양식은 집단구성원이 동조하고 따르는 규범인 동시에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유형화와 그에 따라 주거계획을 하는 것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소비자 분야와 주거학 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양식과 주거생활양식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주거생활양식의 이론모형을 설정

1) 본 논문에서 채택한 주거생활양식이란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만으로 본다면 住居=住生活=住居生活이므로 이미 사용된 용어중 후자 2가지와는 염밀하게 보면 같은 의미일 것이나 주양식과 주거양식은 용어가 주는 의미전달이 물리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므로 용어가 포괄적이지 못하다. 또한, 주거생활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는 새개념, 즉 住居계층, 住居생활주기, 住居생활양식과의 일관성있는 맥락을 위해 주생활양식보다는 주거생활양식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해 보고자 한다.

II. 생활양식

1. 생활양식의 개념

생활양식(Life Style)의 개념은 1950년대의 동기(motivation)연구 또는 인성연구를 통하여 나온 것으로 사회학자인 Weber와 정신분석학자인 Adler에 의해서 만들어졌다(이차옥, 1983: 13).

Adler에 의하면, 인간은 행위주체로서 외부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자기통일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과거생활환경에 대한 대처 경험 혹은 생활과제의 독자적인 해결방법과 미래의 목표를 향한 노력 중에서 통일성과 연관성이 있게 되며, 이러한 전체성이 생활양식이다(Adler, 1964: 38-49).

Coleman은 각 개인의 지각, 사고, 행동의 일관성을 생활양식이라 부르고, 각 개인은 독자적인 비교적 일관된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다(Coleman, 1964: 63)고 했다.

생활양식 개념을 소비자행동연구 및 마케팅 분야에 도입한 Lazer는 생활양식이란 시스템 개념으로서 집합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특징적인 생활방식(mode of living)이라고 하였다(Lazer, 1963: 13).

일본에서도 최근에 주목을 끄는 연구가 생활양식 연구로서 주로 생활구조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생활자가 생활구조를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는가, 그리고 그 선호유형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생활주체자로서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회경제적인 거시구조와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김일철, 1991: 223-224). 생활구조연구를 한 三浦典子는, 생활구조론은 사회구조가 거시적이며 기계론적 함정에 빠져 인간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분석에 끝나기 쉬운 오류를 지양하고 생활인으로서의 '개인생활'과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체계를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뿐

한 목적을 가지고 생활구조를 연구하였다(三浦典子 외, 1986: 3). 따라서, 생활구조라는 개념은 전후 일본사회의 빈곤, 농촌, 도시, 가족 등 재구조화 과정의 사회적 문제 영역을 현실적 생활상을 중심으로 분석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된 것으로서 결국, 생활양식을 규명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생활양식에 대한 개념은 이처럼 1950년대의 사회학자와 심리학자에서부터 오늘날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미를 지닌 채 사용되어 왔으나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의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 또는 집단이 독자성, 창조성, 가치의식과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각각의 기호·선호에 상응하는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려는 통합된 기능이 있다(이차옥, 1983: 17)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활양식이란 문화의 분명한 표현체이며, 자원을 어떻게 할당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이다. 또한, 가치를 표현하고 구체화하며 가치가 생활양식을 문화에 연결한다. 즉 생활양식은 사회제도 및 제반환경에 대응한 생활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체계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제반환경에는 물리적인 건축물에 대한 가치의식, 사용 및 소비에 대한 가치의식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체계는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미래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생활양식에의 접근방법

생활양식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그 분석수준과 연구자료의 성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동기, 1992: 335-337).

첫째, 거시적 차원의 분석은 사회 전체 또는 지역 사회 전체의 생활양식의 경향을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방법은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경제량 이외의 지표로서 결정하고, 특정 전체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생활수준이나 생활여건의 상태와 질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분석·예측하려는 것이다.

둘째,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생활양식의 주요 변

인 중의 하나를 사람의 심리적 변인으로 간주하고 객관적 자료 즉,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거주지역)과 사회문화적·경제적 변인(직업, 소득, 생활수준, 가치관)과 생활재의 보유 사용 패턴·생활시간의 배분 패턴·생활공간의 이용패턴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주로 주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심리 측정의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구 유형, 그 자체를 측정·분석하여 사회적 경향의 파악이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양식의 연구는 측정도구의 표준화와 측정의 경제성, 그리고 연구의 신뢰성, 타당성과 관련된 방법론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윤복자외 6인, 1994)이 지적되고 있는바, 이제까지는 주로 생활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변인을 설정하여 질문지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심리측정이나 태도 측정 등을 사용해서 자료를 얻고 요인분석 및 집약분석으로 생활양식 유형을 추출(Cohen, 1981 : 249)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생활양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소비자 분야에서는 A.I.O분석방법(A.I.O Approach)을 많이 사용하였다. A.I.O분석방법은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항목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의 활동(Activity),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Interests), 사회적·개인적 문제에 대한 의견(Opinion)들을 양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며(Engel et al., 1978:191), 최근에는 가치(value)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 항목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A.I.O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Activity) : 매체접촉, 쇼핑,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웃과의 대화 등과 같은 명백한 행동으로서, 이는 쉽게 관찰되나 그러한 행동의 이유는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못한다.

■ 관심(Interests) : 어떤 객체나 사건 또는 화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은 특별하고 계속적인 주의를 수반하는 자극의 정도를 말한다.

■ 의견(Opinion) : 어떤 질문이 이루어진 자극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의 구두 또는 서술형의 대답이며 타인의 의향에 대한 믿음, 미래 사건의 예측, 또는 보상이나 처벌과 같은 해석, 기대, 평가 등을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는 A.I.O항목을 이용하여 생활양식에 대해 조사하면서 소득, 가족생활주기, 교육수

〈 표 1 〉 생활양식 조사차원

활동 (Activity)	관심 (Interest)	의견 (Opinion)	인구통계 학적 변인
작업, 일	가족	자신	연령
취미,	집	사회적 문제	교육수준
사회적 활동	직업	정치	가족수
후기(방학)	사회 (지역사회)	기업경영	주거지
오락	레크레이션	경제	지역
클럽활동	패션(유행)	교육	도시크기
지역사회활동	음식	제품	가족생활 주기
쇼핑	매체 (매스컴)	미래	
스포츠, 페저	성취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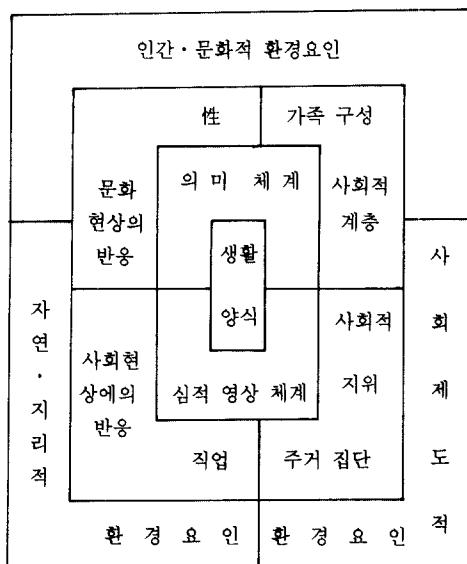
출처 : J. P. Plummer(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34.

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포함시키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1〉에서 Plummer(1974)는 생활양식조사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주거지, 지역, 도시크기, 가족생활주기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주거생활양식의 경우는 다른 변인들이 고려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래서 생활양식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과 돈의 사용패턴이며(Engel 외, 1978: 174), 소비를 규정하고 또한 소비에 의해 규정되는 통일된 행동의 양태일 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의식, 의견, 흥미, 관심 그리고 나타나는 행동의 통합된 시스템(오상락, 1981: 89)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廣渢芳弘은 생활양식의 결정 요인을 의미체계·심적영상체계와 그것을 둘러싼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廣渢芳弘, 1973: 50).



〈그림 1〉 생활양식의 결정요인(廣渢芳弘, 1973: 50)

吉田正昭 등(1980)은 소비자행동과 생활양식의 모델에서 생활양식을 규정 지우는 기본 요인은 생활구조·생활의식·생활환경 요인의 합성변인으로 보았다(吉田正昭 등, 1980: 169). 생활양식의 결정요인은 생활구조요인과 생활의식요인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생활환경요인이 작용하여 이 세요인은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생활양식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학분야에서는 생활양식의 6개 영역(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구매생활)을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중산층의 생활양식 유형을 도출한 연구(윤복자 외 8인, 1994)가 대표적인데 패션지향형, 실내장식형, 실용추구형, 식생활간편추구형, 취미지향형, 건강지향형 등의 6개 유형이 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생활양식의 접근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양식의 개념 고찰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채용하여 주거생활양식의 개념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양식은 생활의 구조적인 측면인 생활의식, 생활행동, 가치관 등의 복합물로서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주거생활양식은 각기 유형과 차원과 속성을 가진 여러 요소의 조합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둘째, 생활양식은 환경적인 요인인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별가족의 주거생활양식은 가족규범으로 파악하고 집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문화규범으로 이원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양식은 소비행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 소비유형에 반영된다. 따라서 현재의 주거조건은 소비의 결과로서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택, 내구소비재, 가구의 선택행동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주거생활양식은 내구재 소비지향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넷째, 생활양식은 미시적 차원인 특정 개인으로부터 거시적 차원인 사회전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의 규모로 파악되므로 개인과 가족, 사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모형이라야 할 것이다. 즉, 생활양식은 넓게는 사회전체나 사회의 특정 부분 혹은 가족, 좁게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양식으로서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수용하는 생활양식의 접근방법

으로부터 주거생활양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III. 주거생활양식

1. 주거생활양식의 개념

주거생활양식은 건축물 중의 하나인 주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과의 대응 그 자체가 주거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거생활양식이란 주택이라는 공간에 대응하여 발생되는 행위체계를 의미한다고 볼 때, 이는 주택이라는 환경과 그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행태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환경·행태이론의 관점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Holahan(1982)은 인간의 행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특성과 환경의 본질을 알아야 하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상호교류적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Holahan의 입장은 Lewin(1936)의 B=f(P,E), 즉 행태는 인간과 환경의 합수라는 고전적 논리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적인 영향력에 관한 생각을 자신의 이론에 적용하여 환경행태에 대한 상호교류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양방적인 역동관계로 본 점이다(Holahan, 1982).

주거생활양식은 연구자마다 개념정의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거생활양식을 형성하는 가장 의미 있는 요인은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직업, 결혼상태(marital status), 교육, 소득 등이다.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家長 혼자 버는가, 가족이 같이 소득을 올리는가 등의 요인들은 가족의 흥미활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가족의 주거생활양식은 이를 가정생활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윤정숙 외 2인, 1992: 48).

주거생활양식은 인간, 물적자원과 관련이 있지만 금전만으로 주거생활표준의 결정지표가 되지는 않는다. 즉 가족의 창의성과 자원의 이용이 때로 금전만

으로 구하지 못하는 근접환경 만족에 기여할 수 있고,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금전자원을 이용한 주거생활양식을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거생활양식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을 보면, 개인이나 가족생활은 장소와의 상호영향성 때문에 주어진 시점의 주요활동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 사무실, 가정 같은 장소에서의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주거생활양식은 좀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행동들(탁아서비스, 공동배차)과 새로운 행동환경(탁아소, 차고, 거실이나 부엌의 크기)이 중요해진다. 또, 이러한 시설 배치 개념들이 주거에 연결되기를 원하게 되며, 이는 주택내부의 공간사용지향성에 국한되지 않고, 균린환경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균린환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주거생활양식은 도시, 교외, 시골 지역이냐에 따라 또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성을 가지며 전형적인 형태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주거생활양식은 주거와 가족상호간에 영위되어지는 총체적인 생활방식(way of life)'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주거생활양식은 그것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개인의 행위에 따라 주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주거생활의 표현양식인 것이다.

2. 주거생활양식의 유형 - 선행연구

최목화(1986)는 주거생활양식을 주거가치와 관련하여 실제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주거생활양식의 관련변인으로서 가구사용, 공간사용, 난방방법, 현재의 주거생활조건 등의 네가지를 포함시켜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재래식 기본생활유형, 재래식 가족중심생활유형, 절충식 가족중심생활유형, 현대식 기본생활유형, 현대식 사교·여가생활유형으로 분류하였다(최목화, 1988: 81-87). 이러한 유형분류방식은 재래와 현대라는 가치방향이 주거생활양식유형에 나타남으로써 차원적이기보다는 위계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최찬환(1986)은 주거양식을 주거생활 영위의 방법으로 보고 그 하위구성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태도 및 주요구 등의 주거의식과 주생활내용으로 분류하였고, 조성희(1988)는 생활과 주공간의 대응 측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생활양식을 공간사용행태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하위변인으로 실별 행위, 영역행동, 실 호칭, 가구사용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것은 공간사용행태와 주생활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가치→소비→사용이라는 일련의 연결체계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면에서 스즈끼(1985)는 주생활 전체의 양식을 '주양식'이라고 하고 생활을 하나하나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의 상으로 즉, 하나의 생활상으로써 파악해야 한다고 한 것은 고무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경험적 연구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분화하여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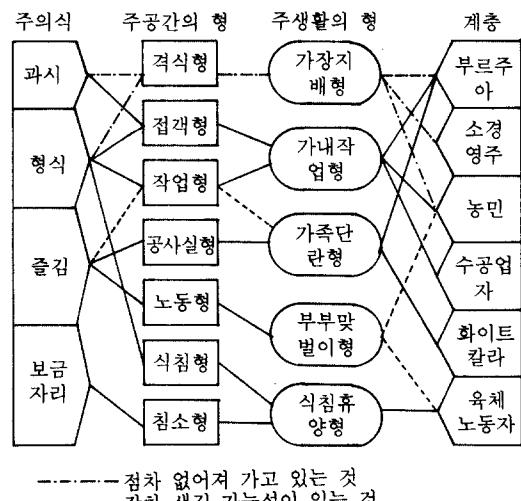
전경배·윤충열(1989)은 스즈끼와 같은 관점으로써, 주생활양식에 대해서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생활양상 즉 생활유형을 말하며, 주생활면에서 나타나는 전통, 습관화된 생활행동의 상태'라고 정의내리고, 이 주생활양식에 관계되는 조건으로 기거양식, 외부에 대한 개방성 대 폐쇄성, 보수성 대 혁신성, 독립성 대 개방성, 기능적 편리성 대 공간의 분위기 등의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조건을 포함시켰으나 구체적인 소비지향성과는 연결을 시키지 않았다.

윤정숙·전경윤(1990)은 주생활양식을 구체적 생활행위의 행태적 특징으로 정의하고 주생활양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생활의 행위적 측면인 공간사용방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간사용방식을 행위형태나 요소로 묶어서 봄으로써 주생활양식을 행위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의 두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

김미희(1991)는 주생활양식을 주택이라는 공간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행위체계라 정의내리고, 이는 주거가치관, 공간사용방식, 내부가구 및 설비 등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생활행위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주생활의 변화과정은 밝혔으나

가족이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를 유형화 하지는 못하였다.

니시야마(1968)는 '주생활양식은 인간이 주거 내에서 살아가는 양식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인 주의식과 행위적 측면인 주생활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여기서 주의식이란 생활요구 가운데서 주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촉진하고 조건지우는 심리적·정신적 기반으로서 주요구의 확대, 방향, 강도, 성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주생활형식이란 인간이 주거내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형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주생활의 유형을 家長지배형, 가내작업형, 가족단란형, 부부맞벌이형, 식침휴양형의 다섯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생활형과 사회적 계층, 주공간의 형, 주의식과의 대응관계를 모형화하였는데(鈴木成文 외 2인, 김광문 외 2인 역, 1988 : 50-51).〈그림 2〉 각각의 현상을 유형화해서 연결하는 형태를 따므로써 이러한 것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미래예측을 위한 변인으로서의 성격보다는 현상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 주의식·주공간의 형·주생활의 형·계층 관계도(鈴木成文 외 2인, 김광문 외 2인 역, 1988)

용어 선택 및 그 기본 관점이 니시야마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는 김정규(1988)는 주생활양식이 주의식과 주생활 형식간에 상호영향을 주면서 형성되고 이

에 따라 아파트의 공간성격이 규명되어진다고 하였다.

홍두승·김미희(1988)는 중산층의 주거생활양식을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및 구조와 이것이 갖는 사회계층적 합의, 즉 계층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주거생활양식의 차등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접근방법으로는 주택의 보유 여부 및 규모, 주택설비와 주거문화, 거주지역 등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중산층의 생활양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유형화작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Faulkner와 Faulkner(1989)는 생활양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주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공간 및 시설과 연결시켜 주거생활양식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생활공간을 계획하기 위해서 생활양식은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행위에 할애되는 시간의 비율이 의미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시간소비유형이 생활양식유형화에 주요측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윤정숙 외 2인(1992: 48-54)은 가치관에 따라 주거생활양식을 광범위하게 분류했다. 즉 도심과 교외의 생활양식, 형식적·비형식적 생활양식, 전형적 중산층과 개인화된 생활양식, 소박한 생활과 절충주의적 생활양식, 전형적인 가족과 새로운 가족형태의 생활양식으로 나누었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분류방식으로서 구체적 연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김일철(1991: 229-230)은 생활주체의 성격에 따라 생활구조 즉, 주거생활양식을 암시하는 생활구조의 유형을 나누었다. 생활주체의 성격을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개혁주의자, 이상주의자로 나누고, 이에 따른 생활구조의 유형을 현실주의자인 경우는 현재지향적 생활구조로, 실용주의자인 경우는 전통적 생활구조로, 개혁주의자인 경우는 미래지향적 생활구조로, 이상주의자인 경우는 도덕적 생활구조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차원성보다는 방향성을 암시하고 있다.

고경필·윤재웅(1994)은 주생활양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장식추구, 자기표현, 내부기능성, 실용성, 과시성으로 규정하고 주거가치 및 주택구매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주생활양식을 실내공

간구성의 특성으로 한정하고 주거가치와 구매행동을 모형안에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이상의 주거생활양식의 관련 개념과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간과 주거의 대응관계에서 발생되는 생활방식(way of life)이라 할 수 있고, 하위 영역은 사회·문화·심리적 요소가 반영된 정신적 측면과 소비자행동과 내구재 소비상황,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이 반영된 행위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주거생활양식은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특징적인 환경을 초래하며, 어떤 선호를 나타내고 특정 생활방식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데, 때로 이러한 것은 무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생활양식은 구체적인 행동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단순한 가치관이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이는 가치·태도·행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거생활양식 모형의 하위영역은 가정생활가치관, 주택과 내구재 및 가구소비지향성, 공간지향성의 세 영역에서 가치, 태도,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조합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거생활양식의 하위영역

1) 가정생활가치관

Rapoport(1989)는 생활양식이란 문화의 극명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상징적 자원, 노력, 시간 등의 자원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그러므로 생활양식은 가치를 표현하고 가치와 결합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인간이 한 가정을 형성하여 의식주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그 가족원의 가치관이 표출되어 어지는데, 사회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화규범의 측면, 가족의 독자적인 가족규범적 측면이 융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지향 방향을 가정생활가치관이라 명명할 수 있다.

가정생활가치관은 궁극적으로 가족이 가정생활가치관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러한 것이 생

활양식의 방향을 결정하고, 주거의 선택이나 유지·관리, 기타 내구소비재 소비와 공간사용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생활가치관 영역은 '생활양식'이라는 가치관과 행위가 포함된 용어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나, 가족의 목표를 나타내는 가족가치관과 주거가치관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유형화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1) 가족가치관

한 가족의 생활양식은 가족의 욕구 및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가족의 목표가 결정되면 가족집단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의 목표가 가족원간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증진에 있다면 그 가족의 생활양식은 여가나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것이다. 또 자녀의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는 가정은 또 그에 따라 자원 및 시간과 공간을 할애한다든가 이사를 하는 등의 행위양식을 나타낼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7)는 한국인의 중산층의 실태 분석을 위해 생활양식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족구성, 맞벌이의 여부, 가정부나 파출부의 고용여부, 가족관계-부부문제와 부모자녀문제, 외식의 빈도, 이사횟수와 동기였다. 그 결과 중산층의 가족구성은 평균 가족원수가 4.6명이며, 핵가족의 비율이 전체가족의 71%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부부는 약 12%이며, 69%의 가정에서 주부가 집안일을 전담하고,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 집은 6%에 불과하고, 파출부의 고용은 21%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인들은 이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사동기는 주거규모의 확대, 주위환경, 자녀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중산층은 비교적 뚜렷한 생활세계를 가지고 물질적 생활수준이나 생활양식에서 계층적인 독자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Otto(1962)는 가족의 신체적·정서적·정신적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어 질 수 있는 역량,

가족원의 의사소통 역량, 가족 안팎에서 성장·발달 할 수 있는 관계를 설립하고 지지하는 가족의 역량, 이웃·학교·지역사회·정부와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역량,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통해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가족원들의 역량, 자립능력과 아울러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역량, 가족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가족성원들의 개인성에 대한 상호존중, 가족의 단합·충성·상호협동에 관한 관심 등이 가족을 강하게 하는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가족원들은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나아가서 가족의 목표로 발전하고 가족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Stinnett와 Sanders(1982)는 감사할 줄 아는 표현 능력, 가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가족에 몰입하는 정도·책임감, 좋은 의사소통유형, 종교, 긍정적 태도로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족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이 지각하고 있는 자기 가족의 강점, 가족의 활동, 역할, 의사소통 유형, 가족성원 상호간의 관계 등은 무엇인가에 응답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족이 추구하는 강점으로서 사랑(14.2%), 종교(10.9%), 존경(9.8%), 의사소통(9.1%) 그리고 개인성 존중(9.0%)을 지적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가족들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활동으로는 가족이 함께 외출 또는 외식하기(12.5%), 휴가(10.3%), 교회(9.6%), 운동(6.5%) 등으로 나타났다.

유영주(1986)는 우리나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전 가족의 중요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했는데 첫째, 대화가 있는 가족, 둘째, 신뢰·존경이 있는 가족, 셋째, 사랑이 있는 가족, 넷째, 인격을 존중하는 가족, 다섯째, 가족역할을 잘 수행하는 가족, 여섯째, 화목한 가족, 끝으로 뚜렷한 가치관이 있는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가족의 전전도가 주거가치나 주거생활양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가족의 자원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가족의 목표는 개별가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가족원이 추

구하는 고유한 목표에 따라서 가족가치관과 그들의 생활양식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주거생활양식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가치관을 조사하여 범주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사료되어진다.

(2) 주거가치관

주거를 선택 결정할 때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거주자들이 의식·무의식적으로 주택의 어떤 특성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개인적인 가치를 주거가치라 하며 가족단위로 적용될 때는 가족의 주거가치관이 된다.

주거가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하며, 가치는 목표 선택에 영향을 준다. 또한 가치는 개인의 문화적 배경, 교육,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의 총체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므로(Williams, 1956), 선택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범을 평가하는 지침이 된다.

Cutler(1974)는 주거가치를 10개의 가치(건강과 안정성, 편리성, 안락, 경제성, 위치, 독립성, 심미성, 친밀감, 여가)로 분류하고, 주거가치에는 가족의 기호와 욕구가 반영됨을 제시하였으며, Beyer(1959)는 농촌과 도시가족의 주거가치를 비교하여 9개의 가치(권위성, 가족중심, 심미성, 평등성, 물리적 건강, 경제성, 자유로움, 정신건강, 여가)를 제시하였다.

주거선택에 가족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연구한 Smith(1963)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가족, 이사하는 이유, 다른 집을 선택할 때 가치가 주로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주거가치는 가족생활주기, 사회계층,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Cutler는 각 계층내의 가치는 비슷하지만, 계층들간에 차이는 다르다고 하였는데 상류층에서는 편리성과 안락함에 가치가 편중되어 있고, 중류층은 대인관계에 큰 가치를 두었으며, 하류층은 건강과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계층 중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태도와 목표는 다른 계층과는 판이하게 다른 욕구에서 나온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다(Hartmann, 1973). 즉 저소득층은 주택의 물리적인 측면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어서 사회적 권위나 미에 대한 가치보다 건강이나 안락함 등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79)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연구에서 주택을 선택할 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주택가격을 중시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은 주변환경과 주택 구조 및 시설을 보다 많이 고려한다고 하여 사회계층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의 질 측정변인으로 주거가치를 연구한 최목화(1988)는 주거가치에 주거욕구의 순위 체계를 도입하여 1단계는 생리적·건강성, 2단계는 안정성, 3단계는 주변환경, 4단계는 심미성, 5단계는 사회성·사교성, 6단계는 자아실현, 7단계는 신분상징으로 나누었다. 김미희(1991)는 주거 가치관을 기능성, 안전성, 안락성, 사회적 접촉, 신분상징성, 심미성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들 두 연구는 가족가치관과의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거가치는 개별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가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주거선택에 있어서 가족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족가치관과의 연결은 어떠한지, 이 두 가치관을 합쳐서 유형화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주택, 내구재 및 가구소비지향성

한 가족이 어떤 물품을 소유하는가는 그 가족의 기호, 직업, 문화생활에 대한 열망, 사회적 체면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경제력도 문제가 된다.

(1) 주택, 내구재 소비지향성

백숙인은 계층·계급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에서 내구소비재(자가용, 비디오, 애어컨,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전화)보유 정도와 주택소유여부가 어떻게 생활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공간의 자본화에 따른 도시주택가격상승은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 현황을 비교하여 생활양식을 설명하였다. 즉 서울시 가구의 직업계층별(관리경영직, 전문직·인텔리, 자영업주, 사무직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반포로)비교 분석에 의하면 주택소유에서 가

장 큰 편차가 드러났다. 또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생활상의 편차는 소득불평등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내구소비재의 소유와 주택소유유무는 계층간 불평등의 가장 가시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백옥인, 1991).

홍두승, 김미희(1988)도 주택의 물리적 특성 및 구조와 계층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차동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에서 주택의 계층적 지위는 삶의 기회와 생활양식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택계층의 주요변인으로 규모, 소유 여부, 거주지를 들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7)도 중산층의 실태분석에서 물품소유상태(전화, TV, 냉장고, 컬러TV, 가스레인지, 카메라, 피아노, 전자레인지, 비디오, 오디오, 자가용, 컴퓨터, 크레디트카드, 콘도회원권, 헬스·골프회원권)를 통해 생활양식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중산층의 필수품에 속하는 것은 전화, TV, 냉장고, 컬러TV, 가스레인지, 카메라 등으로 보유율도 93.99%로 나타났다. 오디오, 크레디트카드, 피아노, 전자레인지, 비디오, 승용차는 중산층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물품인 에어컨, 퍼스널 컴퓨터, 콘도회원권과 헬스·골프회원권은 중산층에게도 사치품으로 나타났다. 윤복자 외 4인(1994)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생활양식을 식별하는 데 간단명료하면서도 효과적인 사회계층지표가 된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차종이 소형인 경우에는 실용성지향형, 중형류는 실내장식과 패션지향형, 대형류는 취미와 패션지향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택 외에 현대생활에서 비중있는 중요한 내구재는 자가용,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 비디오, 오디오, 에어컨, 이동식 전화로서 이의 소비 및 보유상황은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구재품목 선정시 유용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내구재 소비지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주거생활양식파악에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가구소비지향성

여러 사회학자 및 인류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들

의 성격을 표출하고, 개인이나 사회의 목적을 촉진시키거나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화하는 방법을 통찰하기 위해서 주변의 물질적 인공물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중요성을 언급하였다(Laumann and House, 1970).

주거공간에서 가구의 선택과 꾸밈 형태, 즉 가구소비지향성은 가족들이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그 자체의 모습과 특성에 의해 생활상을 비언어적이면서 동시에 행위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의사전달도구가 될 수 있다. 가족은 그들의 집을 계획하고, 장식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투영한다. 즉 그들 자신의 생활양식이 나타난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주거생활양식을 소비유형으로 가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개념을 이러한 생활양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 소비의 형태로서 주거공간의 가구사용 및 장식스타일을 사회경제적 지위의 표상으로 증명하려는 연구들을 시도해 왔고(Laumann and House, 1970; Amaturo et al, 1986; Bonnes et al, 1987) 주택과 주거의 물품들은 단순한 기능이나 가격의 차이를 넘어 양식화되고 세련되며 점차 분화되어 생활양식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로서 그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구의 보유특성을 통하여 가구소비지향성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가구의 품목을 선행연구(전한종, 1986; 신영숙, 1987; 윤정숙·이은경, 1990; 김미희, 1991)들은 웃장, 화장대, 소파세트류(소파, 탁자류), 장식장류(장식장, 책장, 서랍장, 문갑), 책상류(책상, 의자)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의 보유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구의 전체적인 양식(style)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사료되고 이 두 특성을 합쳐 유형화가 가능한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 공간사용지향성

공간사용지향성이란 주공간에서 발생되는 주생활 행위의 양태를 의미하고 이는 공간의 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가 즉, 각 공간에서 어떤 행위들이 얼마만큼 발생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파악을 위한 선행조건은 각 공간의 성격을 규

정하는 주거생활행위를 유형화하고, 유형들이 사용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평면의 형태와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주거생활행위를 유형화한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이옹섭(1975)은 공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공간사용규범을 파악하기 위하여 30개의 주거생활행위들을 요인분석하여 주거생활행위유형을 단란·접객행위, 가사행위, 자녀의 개인생활행위, 생리적 행위로 나누었고, 김미희(1991)는 개인생활행위, 공동생활행위, 가사작업행위로 나누고 이 중에서 공동생활행위를 가족내의 가족단란행위와 식사행위로, 가족 외의 접객행위로 나누었다.

실증적으로 분류된 주거생활행위유형 또는 공간사용방식을 사용자계층과 관련시킨 연구들을 보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생활의 차이(정한종·박용환, 1987; 신영숙, 1988)와 시대적 변천과 지역적 차이에 따른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연구(최찬환, 1987), 주택규모·직업·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한 연구(김미희, 1991) 등이 있다. 특히 김미희(1991)의 연구는 집합주택의 경우 주택규모와 그 주택규모가 이미 결정하고 있는 평면형식(우리 나라의 아파트는 규모에 따라 그 평면형식이 거의 획일적이다)에 따라 주거생활양식이 규정지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간사용방식을 평면형과 관련지어 연구한 것들(住田昌二 등, 1978, 1979; 조성희, 1988; 박경옥·김선중, 1989; 윤정숙, 1990)을 보면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의 관점에서 공간사용방식을 식침분리, 공사분리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공간사용지향성의 분류를 위해서는 일단계로 주거생활행위 유형을 크게 나누고, 이들을 다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간사용유형을 평면형과 관련지어 가족원의 공사실이용과 여가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주거생활양식의 유형화가 가능해지리라 생각된다.

IV. 주거생활양식의 이론 모형

지금까지의 주생활이나 공간이용방식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생활주기나 지역과 같은 변인만을 채용(최찬환, 1986; 전한종·박용환, 1987)하여 부분적으로 분석되거나, 주거생활양식을 계층화의 결과로 간주하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주생활양식의 차이를 규명(홍두승 외, 1988; 김미희, 1991)한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만으로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하는 것은 주거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주요변수로서의 주거생활양식을 대변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홍형옥,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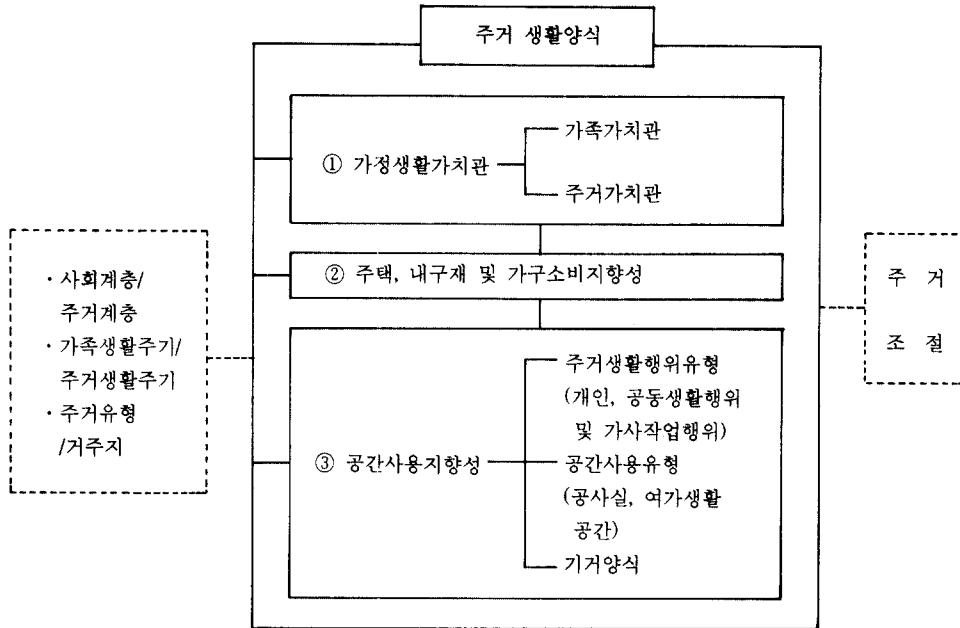
첫째, 사용자의 여러 계층적 특성에 따라 주거생활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계층과 주거계층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시켜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거계층이란 주택계급의 개념을 토대로 주거생활양식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거계층을 구성하는 변인으로는 주택의 소유형태, 주택의 유형, 규모, 주택의 질, 거주지역, 사용방수로서 다른 지위변인보다 주거생활양식의 영위결과 나타나는 주거만족을 잘 설명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박정희, 1992: 100-104)으로 밝혀졌다.

둘째, 가족생활주기와 주거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생활양식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생활주기는 가족생활의 성장과 발전, 쇠퇴의 과정을 중심으로 특히 공간적·환경적 요구와 성취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가족생활주기 변화와는 달리 모든 가족이 비슷한 과정을 밟지는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주거변화를 다루면서 주거생활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가족생활주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김대년, 홍형옥(1990)은 주거규범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주거생활주기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몇몇의 연구(Beyer, 1949; Soen, 1979; 황명찬·박현주, 1983; 유영주·홍형옥, 1982)에서는 주거생활주기의 단계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단계는 기존의 가족생활주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거

요구 및 복지수준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윤정숙 외 2인, 1992 : 43-48).

관관계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림 3).



〈그림 3〉 주거생활양식의 이론 모형 <점선은 경험적 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을 나타냄>

그리므로 가족생활주기 단계와 주거생활주기 단계를 채택하여 이에 따른 주거생활양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예전적 측면과 복지적 측면을 이용한 주거생활양식의 규명에 유용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住田昌二 등, 1987, 1979; 조성희, 최찬환, 1986; 전한종·박용환, 1987; 홍두승, 김미희, 1988; 조성희, 1988; 박경옥·김선중, 1989; 윤정숙, 1990, 박정희, 1992)에서 주거유형과 거주지가 주거생활양식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변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주거유형과 거주지에 따른 주거생활양식은 유형화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모든 주요변수들이 주거계층이라는 변수를 대변할 수 있는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주거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결국 가족의 주거조절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는 데 그 궁극적 목표가 있으므로 주거생활양식 유형과 주거조절행동(주거조정, 주거적용)과의 상

V. 결 론

그동안 우리 나라는 계층에 따라 주거생활양식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어 왔다. 이는 가치관이 주거생활양식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지역이나 주거유형 등이 오히려 주거생활양식을 선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증해 주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이용한 실증적인 자료를 근거로 주거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주거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주거생활양식의 연구현황은 생활과 공간상의 단편적인 측면들만을 분석하였을 뿐 생활전체의 양상들과 주거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로써의 생활구조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치·규범 등의 관념적 차

원과 계층·소득이라는 실질적 자원소비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구획성과 획일성을 강조하는 개념보다는 다양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개념을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주거생활양식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는, 현대 대중소비社会의 아노미현상, 욕구불만과 소외감이라는 병리현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생활양식에의 갈망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개별가족의 주관성을 사회적인 객관성과 조화시키는 미시사회학적 접근의 연구(홍형옥, 1994)가 필요하다.

이상의 것은 구체적인 디자인 대안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주거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제안한 연구(Wentling, 1995)에서도 미래는 획일적인 디자인 대안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생활양식 중심의 다양한 대안이 나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생활양식은 가족원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개념은 가족이 속한 생활주기나 주거생활주기 및 계층이라는 개별가족의 고유한 특성변수로 범주화되므로 주택의 질과 주거생활의 질을 예측하고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주거단지의 계획이나 주택정책의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고경필, 윤재웅(1994). 주거가치와 주생활양식에 따른 주택구매행동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5권2호, 65-76.
- 2) 김동기(1992). 현대 마케팅론. 서울 : 박영사.
- 3) 김미희(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김일철(1991). 「생활구조」의 연구와 농민생활의 개념 도식시론.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일지사.
- 5) 백우인(1991). “계급·계층별 생활양식.” 사회계층 - 이론과 실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회 편. 다산출판사 : 550-566.
- 6) 박정희(1992). 도시주거계층연구: 분석모형의 탐색, 경희대 박사논문.
- 7)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7). 한국의 충산총. 한국일보사.
- 8) 유영주(1991). “전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가정생활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1호:45-63.
- 9) 윤복자 외 8인(1994). “서울시 거주자의 생활양식 측정도구 개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255-263
- 10) 윤복자 외 4인(1994). 서울거주자의 계층별 생활 양식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권 4호 : 241-250
- 11) 윤정숙, 이경희, 홍형옥(1992). 주거학. 한국방송통신대학.
- 12) 윤정숙, 이은경(1990). “한국 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양식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 53-65.
- 13) 윤정숙, 전정윤(1990). “한국 도시 주택의 평면 구성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4호 통권 30호 : 115-123.
- 14) 신영숙(1988). 주거공간 사용측면에서 본 가족간 상호교류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5) 이차옥(1983).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히 서울시 내 거주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6) 전한종, 박용환(1987).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 -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권 3호 : 81-92.
- 17) 조성희(1988). 주택유형에 따른 주공간 사용형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8) 최목화(1987). 현대 한국 주거의 질적인 수준 예

- 측을 위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 최찬환(1987).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 홍두승, 김미희(1988). “도시 중심층의 생활양식: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제19집. 성곡학술문화재단.
- 21) 鈴木成文 외 2인 저, 김광문 외 2인 역(1988). 건축계획. 서울: 세진사.
- 22) 홍형옥(1994). “한국가족의 주거생활구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12호: 15-26.
- 23) Berger, B. M. Alternative Life Styles and the Quality of Life, Environmental Spectrum, R. O. Clarke, P. C. List(eds.), N. T.: D. Van Nostrand Co., 1974: 111-124.
- 24) Holahan, C.J.(1982)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Random House.
- 25) Laumann, E.O. and House J.S.(1976). Living room styles and social attributes;the patterning of material artifacts in an urban community. In Laumann, E.O. Siegel, P.M. and Hodges, R.W. The Logic of Social Hierarchies. Markham, Chicago.
- 26) Low, S. M. & E. Chambers(eds)(1989). Housing, Culture and Desig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27) Meeks, C.B.(1980). Housing.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 28) Newmark, N.L(1977). Self, Space, and Shelter: An Introduction to Housing. San Francisco; Canfield Press.
- 29) Otto, H.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 77-80.
- 30) Stinett N., Sanders, G., DeFrain J. and Parkhurst A.(1982). A Nationwide Study of Families Who Perceive Themselves as Strong. *The Family Perspectives* 16 : 15-22.
- 31) Wenling, J. W.(1995), Housing By Lifestyle, N.Y : McGrow-hill, Inc.
- 32) 일본 가정학회 가정경영학부회 관동지구 木黃山光者 등 (1979): 新しい家庭生活な考える-家庭生活의 健全度 調査報告 - 樂游書房.